제언

도서관이여!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신 남 희 〈대구 새벗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에 가보고 놀란 점의 하나는 신간구입도서와 권장도서가 함량미달이라는 것이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책들이 절반 가량 되었고, 권장도서는 별다른 기준없이 선정된 것처럼 보였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잘 나가는 책은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류라던 어느 사서의 말도 생각났다. 그러나 책과 우리의 출판문화, 베스트셀러 제조의 상업성과 심각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책들의 8할은 출판사의 광고전략에 의해, 2할은 대중의 감성에 가볍게 영합해 만들어진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책을 구입해서 진열하고 빌려주는 일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책광고나 신간소개도 유심히 보고 1주일에 2번 이상은 대형서점에 나가 책을 살펴본다. 그 때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책을 써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나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잘 팔리는 책을 써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출판사와 작가에게는 상식이 되어버린지 오래인 것 같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에 기댔을 뿐 별 내용도 없는 수필들이나, 현실에서는 도저히 가능할 성 싶지 않은 일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색한 사랑지상주의 소설들, 말장난과 가벼움에 치우친 시집들, 황당무계한 귀신이야기들이 서점가에서 잘 팔리는 책들의 대열에 엄연히 올라있음을 보면서 책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양식일 수 있겠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했다. 경제난과 생활의 중압감에 지친 독자들을 얄팍하게 위로하는 책들이 오늘의 문제를 직시하고 내일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지, 턱없는 사랑지상주의 소설들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 말이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책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인 편향성을 지녀왔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상과 조류가 자유롭게 만나고 부딪치는 곳이 도서관이므로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조와 사상에 대해 개방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되는 의미에서 도서관은 부정적인 사상조류에 대한 비판의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 서가가 싸구려 감상주의에 호소하거나 극우 민족주의를 충돌질하는 책들, 가치판단 기준없는 허접쓰레기같은 책들로 가득차서는 곤란할 것이다. 진정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책들, 삶의 올바른 가치판단기준을 마련해주는 책들, 문학적 향기짙은 책들이 서가를 가득 메우고 널리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책들은 대여점의 책들과 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함에도 실제 별로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서들 스스로가 양서를 구입하려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책들을 선별하여 권장도서로 널리 알리고 독후감 모집도 하는 등 양서를 읽히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도서관이 참된 지혜의 등불을 널리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